

기후금융 현황 및 시사점

(2021. 8.)

경협총괄부 정책분석소팀

기후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응 필요성은 과거부터 국제적 현안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심화, 빈번한 자연재해 등 기후위험에 대한 심각성 및 그 피해가 확대되면서 '15년 파리 기후협약, '20년 OECD DAC 고위급회담 선언 등 기후금융 확대를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금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내용 및 지원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배경

- **(배경)** 산업화 이후 전세계 평균기온은 1°C 이상 상승¹⁾하였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빈번한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 및 인명피해 야기
 -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88~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2조 달러이며, 그 중 직접적인 손실이 77%를 차지
- **(국제사회 논의)** 기후위험 관련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15년 UN의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설정 및 파리 기후협약(Paris Agreement) 체결, '20년 OECD DAC 고위급회담(HLM) 선언 등으로 논의가 진전
 - **(‘15년 UN의 SDGs 채택)**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기후변화 및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SDG 13)'을 독립적 항목으로 설정
 - **(‘15년 파리 기후협약²⁾)**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50년까지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C 이하, 최대한 1.5°C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당사국(191개국)은 5년 단위의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설정, 이행하기 위해 노력
 - **(‘20년 OECD DAC 고위급회담 선언)** ① 국제적인 기후 및 환경 목표에 맞추어 개발 접근방식 조정, ② 포스트 코로나 정책 및 프로그램이 기후·환경 목표와 일관성 있도록 노력, ③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저탄소, 기후복원력 강화)으로 개도국의 발전경로 전환 지원, ④ 군소도서개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1) UN의 기후변화 위험 평가기관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pre-industrial times) 시기인 1850~1900년 대비 2006~2015년 평균기온은 0.87°C(±0.12°C)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2)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것과는 달리, 파리 기후협약은 선진국, 개도국을 포괄하는 모든 당사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 이행하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추가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자금지원, 기술공유 등의 의무 부과).

2. 정의

-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이란 기후변화 적응 혹은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하여, 이 때 자금은 국내외 공적·민간 자금을 모두 포괄(UNFCCC³⁾)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경감,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요소 활용 등 인류 및 자연생태계가 향후 예측되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⁴⁾
-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공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으로, 화석연료의 효율적 사용,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삼림확대 등이 해당

< OECD DAC의 리우마커(Rio markers) 도입배경 및 내용 >

- (배경) '92년 리우회담에서 채택된 환경협약(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별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99년 도입, '08년 입력 의무화*)
 - * 주요(principal) 목적 2점, 부수적(significant) 목적 1점, 해당사항 없음, 0점
- (구성) 최초 리우마커는 생태계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사막화 방지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10년 기후변화 적응 항목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4개 항목으로 구성
 - (기후변화 완화) 파리 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제한, 흡수 노력*
 - * a)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b) 온실가스 흡수·저장, c) 역량개발,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목표가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정 되도록 지원, d) 수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지원
 - (기후변화 적응) 파리 기후협약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및 자연생태계의 적응력 향상, 복원력 강화, 취약성 경감 등에 기여하는 활동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보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활용, 유전 자원 활용혜택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분배
 -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예방·완화, 황폐화된 토지의 복구, 사막화 방지, 가뭄의 영향 완화 등

3)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94. 3월 발효)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여, 총 197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 1회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개최하고 있음. 파리 기후협약은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체결된 사항임.

4) 점진적(Incremental) 적응과 변환적(Transformational) 적응으로 구분 가능(Termeer et al., 2017; Termeer et al., 2018)

- ① 점진적 적응 :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한 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 기후 복원력이 강한 작물재배 등이 해당
- ② 변환적 적응 :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이 해당

2. 현황

① 기후금융 개괄*

* CPI5), 'View of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⁶⁾

- (기후금융 규모) 약정액 기준 '17~'18년 평균 5,74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19년에는 '17~'18년 평균 대비 약 6~8% 증가한 6,080~6,220억불 규모인 것으로 추정(보증, 보험 제외)

< 기후금융 추세 >



- (부문별) '17~'18년간 대부분 기후변화 완화(5,320억불, 92.7%) 측면으로 지원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3,360억불, 58.5%), 저탄소 교통(1,350억불, 23.5%), 에너지 효율성 제고(340억불, 5.9%) 順

< 기후금융 지원부문 >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17~'18 평균
기후변화 완화	445 (94.3%)	427 (93.8%)	570 (93.8%)	493 (91.3%)	532 (92.7%)
신재생에너지	321	269	350	322	336
저탄소 교통	78	106	155	115	135
에너지 효율성	26	33	36	32	34
기타	20	19	29	24	27
기후변화 적응	22 (4.7%)	22 (4.8%)	25 (4.1%)	35 (6.5%)	30 (5.2%)
농업, 산림 등	4	5	7	7	7
재난위험관리	3	3	4	8	6
수자원, 위생	11	11	8	11	10
기타	4	3	6	9	7
다부문(완화&적응)	5 (1.1%)	6 (1.3%)	13 (2.1%)	12 (2.2%)	12 (2.1%)
총 계	472 (100%)	455 (100%)	608 (100%)	540 (100%)	574 (100%)

5) Climate Policy Initiative, 9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 연구기관('09년 설립)으로, 정부, 기업, 금융기관이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 제공, 정책제언 실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6) 동 보고서의 기후금융 수치는 개별 사업단위의 정보를 중심으로 불룸버그,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DAC), 설문조사, 각 기관 연차보고서 등을 활용하였으며, R&D 등 기술개발 비용 등은 제외(추후 사업비용에 직, 간접적으로 포함되므로)하는 등 보수적으로 수치를 추정하고 있음.

- (자금출처) '17~'18년간 기후금융 사업의 재원은 국내자금이 75.6%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자금 중 OECD 국가에서 非 OECD 국가 앞으로 지원된 규모는 전체 기후금융의 8.3% 수준

< 기후금융 재원 >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17~'18 평균
국내	382 (80.9%)	370 (81.3%)	480 (78.9%)	388 (71.9%)	434 (75.6%)
non OECD*	214	214	315	205	260
OECD	168	156	164	178	171
기타(transregional)	-	-	1	6	3
해외	90 (19.1%)	85 (18.7%)	128 (21.1%)	152 (28.1%)	140 (24.4%)
non OECD → OECD	3	3	5	4	5
non OECD* → non OECD	12	10	31	38	35
OECD → OECD	31	27	42	46	44
OECD → non OECD	44	45	42	54	47.8
기타(transregional)	-	-	9	9	9
총 계	472 (100%)	455 (100%)	608 (100%)	540 (100%)	574 (100%)

* 非 OECD 국가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

- 민간재원은 2,740억불(국내 2,390억불, 해외 350억불)로 전체 기후금융의 47.7%를 차지하나, 대부분 자국 내에서 추진되는 기후금융 사업에 참여한 것이며, 해외 기후금융 사업은 대부분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활용(비중 75.1%)

< 기후금융 지원주체 >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17~'18 평균
국내	382	370	480 (100%)	388 (100%)	434 (100%)
민간재원	N.A.	N.A.	238 (49.6%)	240 (61.9%)	239 (55.1%)
공적재원	N.A.	N.A.	242 (50.4%)	148 (38.1%)	195 (44.9%)
해외	90	85	128 (100%)	152 (100%)	140 (100%)
민간재원	N.A.	N.A.	30 (23.4%)	40 (26.3%)	35 (24.9%)
공적재원	N.A.	N.A.	98 (76.6%)	112 (73.7%)	105 (75.1%)
총 계	472	455	608	540	574

2 OECD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ODA 지원동향*

* OECD,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 (현황) '19년 약정액 기준 OECD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ODA 지원규모는 총 411억불*로, 전체의 32.3%를 차지

* 리우마커(기후변화 완화, 적응)가 주요 목적(Principal) 혹은 부수적 목적(Significant)으로 부여된 사업,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지원(다자성 양자) 중 기후변화 완화, 적응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금액

○ 직접지원(342억불)과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69억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 지원의 경우 절반 이상(64.2%)은 기후변화 요소를 부수적 목적으로 고려

<OECD DAC 회원국의 ODA를 통한 기후금융 지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후 관련 양자 ODA (A)	35,633	37,911	37,390	38,162	41,128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	5,427	5,553	5,959	6,300	6,903
직접지원	30,206	32,358	31,431	31,862	34,225
주요 목적	12,023	11,785	12,238	9,647	12,267
부수적 목적	18,183	20,573	19,193	22,215	21,958
전체 양자 ODA (B)	124,646	130,509	130,177	123,442	127,367
비 중 (A/B)	28.6%	29.0%	28.7%	30.9%	32.3%

주) constant prices(2019년 환율적용) 기준.

자료: OECD.Stat, Total flows by donor(ODA+OOF+Private)[DAC1], '21.7.29자 접속.

- 직접지원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후변화 완화 관련 지원비중이 높은 편 ('15~'19년 평균, 완화 46.7%, 적응 29.9%, 완화·적응 23.4% 順)

<OECD DAC 회원국의 직접지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후변화 완화	14,414 (47.7%)	17,024 (52.6%)	12,753 (40.6%)	15,866 (49.8%)	14,647 (42.8%)
기후변화 적응	9,394 (31.1%)	8,769 (27.1%)	10,329 (32.9%)	7,992 (25.1%)	11,395 (33.3%)
다부문(완화&적응)	6,398 (21.2%)	6,565 (20.3%)	8,348 (26.6%)	8,004 (25.1%)	8,183 (23.9%)
총 계	30,206	32,358	31,431	31,862	34,225

□ (공여국별) '19년 기후 관련 ODA 지원금액은 독일 87억불, 일본 75억불, EU 56억불, 프랑스 53억불 順

- 동 지원금액의 양자 ODA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51%, 오스트리아 47.3%, 프랑스 38.2%, 덴마크 37.5% 등(OECD DAC 회원국 평균, 26.7%)
- 기후요소가 주요 목적인 경우만 고려할 경우, 독일 43억불, 프랑스 35억불, EU 14억불, 영국 5억불 등이며, 양자 ODA 대비 비중은 프랑스 24.8%, 독일 17.0%, 스웨덴 13.0%, 노르웨이 8.8% 등으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규모 및 비중이 큰 편
- ※ 한국의 경우 기후 관련 ODA 규모는 12억불(리우마커가 부여된 사업 10억불,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지원 2억불)이며, 양자 ODA 대비 비중은 33.5%임. 또한 기후 관련 ODA 중 기후요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액은 1억불로, 양자 ODA의 3.7%임.

<'19년 기준 OECD DAC 회원국별 기후 관련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공여국(기구)	기후 관련 ODA		양자 ODA 대비	
			(주요 목적)		(주요목적)
1	독일	8,743	4,333	34.3%	17.0%
2	일본	7,517	250	51.2%	1.7%
3	EU	5,595	1,387	28.0%	6.9%
4	프랑스	5,335	3,466	38.2%	24.8%
5	영국	2,896	515	29.0%	5.2%
6	미국	1,633	478	5.2%	1.5%
7	네덜란드	1,598	332	35.7%	7.4%
8	한국	1,200	132	33.5%	3.7%
9	스웨덴	950	336	36.7%	13.0%
10	캐나다	910	180	21.8%	4.3%
11	노르웨이	697	195	20.8%	8.8%
12	스위스	649	131	26.3%	5.3%
13	호주	637	-	28.6%	-
14	덴마크	612	131	37.5%	8.1%
15	이탈리아	506	52	32.2%	3.3%
16	벨기에	475	52	36.1%	4.0%
17	스페인	362	42	33.9%	4.0%
18	오스트리아	231	33	47.3%	6.7%
19	핀란드	173	19	36.4%	3.9%
20	아일랜드	137	46	24.2%	8.0%
21	뉴질랜드	131	37	23.2%	6.6%
22	룩셈부르크	38	9	10.2%	2.3%
23	폴란드	35	4	14.7%	1.8%
24	포르투갈	19	1	12.4%	0.8%
25	아이슬란드	17	3	33.1%	6.3%
26	체코	13	2	13.7%	2.2%
27	슬로바키아	7	-	27.7%	0.9%
28	슬로베니아	6	1	22.5%	1.8%
29	헝가리	6	1	3.9%	0.3%
30	그리스	3	-	1.9%	-
평 균				26.7%	5.4%

4. 한계

- **(재원부족)** '5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 상승폭이 1.5°C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매년 약 1.6~3.8조 달러인 것으로 추산(CPI, 2020)되며, 이와 별개로 개도국이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연간 비용은 현재 700억불에서 '30년 1.4~3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유엔환경계획, 2021)
 - 그러나 전체 기후금융 규모는 '17-18년 연평균 5,740억불에 불과(CPI, 2020)
 - OECD는 국제적인 논의진전, 기후위험 가중 등에도 기후관련 개발금융 규모가 유의미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음을 지적(OECD, 2019)
 - OECD DAC 회원국의 기후 관련 ODA 규모는 '16~'19년간 연평균 2.8% 증가('16년 379억불 → '19년 411억불)
 -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코펜하겐)에서는 '20~'25년간 선진국의 개도국 앞 기후금융(공공·민간재원, 양·다자 포괄) 지원목표를 최소 연 1,000억불로 설정한 바 있으나, '18년 OECD 회원국의 ODA, 수출금융, 민간재원 동원금액 등을 합산한 기후금융 지원규모는 789억불⁷⁾로 여전히 목표금액을 미달하는 수준*(OECD, 2020)
 - * 목표 시점인 '20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기후금융 규모는 1,000억불 미만 수준일 것으로 추정
 - 파리 기후협약에도 동 지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OECD DAC 회원국들 중심으로 동 목표금액 이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25년 이후의 목표 지원규모는 '21. 11월 개최 예정인 26차 당사자회의(COP26)에서 논의될 예정
- **(지원편중)** 전체 기후금융 중 기후변화 적응 측면으로 지원된 금액은 '17~'18년 평균 300억불로 전체의 5%에 불과(기후금융 완화 5,320억불, 다부문 120억불)
 - 이에 따라, '21년 OECD DAC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와 함께 적응부문에 대한 고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World Bank를 비롯한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언급
 - **(EU)** 기후변화 적응 전략(EU Climate Adaptation Strategy, '21. 2월)을 별도로 수립하여, '21~'27년간 EU 예산 중 30%를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배정하고, 이 때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중요요소로 고려할 예정임을 언급

7) 구체적으로 양자 공적자금 327억불, 다자 공적자금 296억불, 수출금융 21억불, 민간재원 146억불로 구성됨. 양자 공적자금의 경우 각국에서 UNFCCC 앞 제출하는 격년보고서(Biennial Report) 수치자료를 활용하였으며, OECD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동 수치는 앞서 언급한 리우마커가 부여된 사업에 인정계수(각국마다 상이, 일반적으로 주요 목적 100%, 부수적 목적 30~100%)를 곱하여 산출, 보고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 '21. 4월)을 통해 '24년까지 공적 기후금융 규모를 '13~'16년(오바마 행정부 2기) 대비 2배,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은 3배 확대*할 예정

* 구체적인 수치 및 지원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음. 다만, OECD DAC 통계상 미국의 '13~'16년 기후 관련 ODA 규모(리우마커 기준)는 평균 24.5억불(상위 5위)이며, 이 중 직접지원은 14.6억불(완화 6.2억불, 적응 3.1억불, 공통 5.3억불),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은 9.9억불임.

- (World Bank) '21. 6월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 2021-25)을 통해 향후 5년간 평균 기후금융 목표비중을 전체 지원금액의 35%로 설정('16~'20회계연도⁸⁾ 평균 26%)하였으며, 그 중 공공부문(IDA, IBRD) 기후금융의 절반은 기후변화 적응 및 복원력 강화에 배분

□ (비일관적 지원형태) 모든 화석연료 관련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지역적 특성으로 불가피하게 화석연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파리 기후협약과 상충되는 화석연료 ODA 사업이 여전히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파리 기후협약 이후의 기간('15~'19년, 5개년) 동안 화석연료 관련* 양자 ODA 약정액은 소수의 대규모 사업지원으로, '19년 41.6억불로 최대치를 기록(5개년 평균 19.3억불, 전체 양자 ODA의 약 1%)

* 화석연료(가스, 석유, 석탄 등) 관련 분야: ① 광물자원 및 광업(채굴), ②산업(정제 등), ③에너지 유통 및 소매(발전목적 제외), ④비재생에너지 발전

- 그 중 석탄발전, 가스발전이 5개년 평균 각각 36.5%, 25.1%로 높은 비중 차지
- 구체적으로 석탄발전 사업은 크게 3건이며, 그 중 2건은 기존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고효율 기술을 적용(초초임계⁹⁾)한 신규 발전소 건립사업이나, 나머지 1건의 경우 효율성이 낮은 기술(아임계)을 적용한 것으로 파리 기후협약에 상충되는 것으로 분석

<OECD DAC 회원국의 화석연료 관련 ODA 지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화석연료 관련 양자 ODA (A)	2,057	1,316	688	1,429	4,162	1,930
석탄발전	634	844	103	609	1,333	705
가스발전	359	396	116	24	1,532	485
그 외	1,064	76	469	796	1,297	740

주) constant prices(2018년 환율적용) 기준.

자료: OECD DAC(DCD/DAC/STAT(2021)5).

8) World Bank의 회계연도는 직전년도 7.1부터 당해연도 6.30까지로, 즉, 2021회계연도는 '20.7.1~'21.6.30 임.

9) 석탄화력발전소는 적용 기술에 따라 초초임계(Ultra-supercritical), 초임계(Supercritical), 아임계(Subcritical)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기술별 연료효율성(에너지 전환율)은 45%, 42~43%, 33~37% 수준임.

5. 시사점

- OECD DAC 회원국 대부분은 ODA 사업 추진시 자체 환경세이프가드(safeguards)를 마련, 적용하고 있으나, 기후금융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요소(위험, 경감방안을 포함)를 주류화¹⁰⁾ 즉, 관련 정책 및 쏠 사업과정(발굴·심사·모니터링·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
 - 특히, 코로나-19 위기사태로 각 공여국이 별도로 추가적인 기후재원을 마련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동 노력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그러나, 사업추진시 기후위험, 성 평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 범분야적으로 고려할 경우 오히려 개별사업의 핵심목표 달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기후요소 주류화 관련 우려사항도 일부 존재
- OECD DAC의 환경, 개발 네트워크인 ENVIRONET에서는 참여국의 기후요소 주류화시 기회, 도전 요인 등을 파악하는 동료학습(peer-learning), 심층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요소 주류화 추진 초기 단계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 OECD DAC ENVIRONET의 기후요소 주류화 동료학습 내용>

- OECD DAC의 ENVIRONET는 설문조사, 타 공여국 방문 등을 통해 참여국의 기후 및 환경요소 주류화 현황 및 방법 등을 파악하고, 긍정적 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동료학습, 심층분석 등을 진행('18~'22년 예정)
- **(DAC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회원국이 ODA 지원시 기후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 존재('18. 2월, 응답 23개국)
 - **(응답현황)** 개발협력 전략에 '환경' 요소 포함 100%, 사업설계시 환경목표 고려 91%, 환경 세이프가드 존재 78%, 기후요소 주류화 지원 52% 등
 - **(주요 애로사항)** ① 다양한 요소에 대한 주류화 요구 및 균형(성평등, 인권, 환경, 기후 등), ② 일관성 및 개념 명확화, ③ 전문성 및 역량부족, ④ 기후요소 주류화 노력은 사업발굴·심사 단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모니터링, 평가, 환류 등 사업발굴·심사 이후의 단계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등
- **(주류화 추진방법)** 국가마다 주류화 추진방법은 상이하나, 법적강제, 정책 우선 순위 명시, 지원목표 설정 등으로 구분

10) '기후요소 주류화'의 정의(OECD ENVIRONMNET): The deliberate and proactiv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ncerns, including climate, into development policies, plans, budgets and actions

□ (추가사항) 기후요소, 생태계다양성 측면으로는 주류화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환경오염 및 사막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 저조

- 한편, OECD DAC에서는 파리기후 협약과 상충되는 ODA 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ODA 지원시 파리 기후협약 준수, 지속가능성 추구 등을 고려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
- EDCF는 상기와 같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사업 체계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요소를 내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바, 향후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CPI (2020), Updated View of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9. Climate Policy Initiative, London.

CPI (2018), Updated View of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8. Climate Policy Initiative, London.

Ian Mitchell, Euan Ritchie, and Atousa Tahmasebi (2021), "Is Climate Finance Towards \$100 Billion 'New and Additional'?" CGD Policy Paper 205.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OECD (2021), Strengthening Climate Resilience: Guidance for Government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18,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9), 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lessons from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Publishing, Paris.

World Bank Group (2021), World Bank Group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21-2025 : Supporting 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Development,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stats.oecd.org>